



복음기도신문은 복음과 기도의 증인들의 믿음의 고백과 열방의 뉴스를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해석해 성도를 일깨우고 열방의 중보기도자로 세우기 위해 격주로 발행되는 신문입니다.

복음기도신문

한국어판 www.gnpnews.org
영어판 english.gnpnews.org
일본어판 japan.gnpnews.org
중국어판 china.gnpnews.org

2010. 10. 3 창간

Gospel Prayer Newspaper

2021. 5. 9 ~ 2021. 5. 29 제247호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 인도네시아 발리의 베사키 힌두 사원을 안내하는 어린이. 제공: WMM

"저기에요!" 앞장선 사원을 가리킨다. 아이는 초꼬마가 뚫어놓은 눈으로 자신이 믿고 있는 신들과 그 신들을 호기롭게 손가락으로 힌두

기리는 사원을 소개하고 싶어 안달이 났다. 그러나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육신을 자랑하고 헛된 우상을 섬기는 것이다. 불행하게도 그 결과는 멸망이다. 아무리 순수한 눈망울을 가진 아이라도 영원한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저 아이를 영원한 심판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헛된 것을 가리키며 달려가는 인류를 위해 그렇게 예수께서 죽으셨다. 이제 손가락을 십자가로 향해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나를 보아야 한다. 예수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이 되고 예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됐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갈라디아서 2:20a) [GPNEWS]

다음 호는 5월 30일자로 발행됩니다

英, 53년간 낙태로 967만 5153명 사망

부흥의 현장 웨일스 하루 600명 낙태

영국에서 1968년 4월 27일 낙태법이 시행된 이래 53년 동안 967만 5153명의 태아들이 낙태로 목숨을 잃었다고 영국 크리스천투데이가 최근 보도했다. 2019년 잉글랜드와 웨일스의 낙태 건수는 20만 9519건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으며, 같은 기간 스코틀랜드는 역대 3번째인 1만 3583건이었다.

현재 북아일랜드에서 극단적인 낙태 찬성 정권이 들어서 잉글랜드·스코틀랜드·웨일스 전역에서 자가 낙태가 허용됐으며, 북아일랜드의 새롭고 급진적인 낙태법은 다운증후군, 구순열, 클럽풋을 포함해 출생 시까지 최대 24주 장애에 따른 선택적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북아일랜드 보건부가 공식적으로 낙태를 인정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3월 새 정권에서 이미 1345건의 낙태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낙태 건수의 증가는 영국의 낙태수술 의료기관

과 함께 여성들을 위협에 빠뜨리는 안전상의 문제 및 다른 중대한 이슈 증가와 맞물려 있다. 지난해 초 영국의 낙태수술 중 60% 이상이 안전에 있어 부적합 판정을 받거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년 동안 영국 보건복지부 산하 의료품질위원회(Care Quality Commission, CQC)는 영국에서 가장 큰 낙태수술 의료기관 두 곳의 건강 및 안전 문제를 상세히 다룬 보고서를 발표했다. 검사관들은 말기 낙태수술을 전문으로 하는 런던의 한 병원을 발견했고, 그곳에 민간 낙태수술 병원 가운데 최악의 등급을 주었다. 그러나 CQC는 2020년 3월 코로나 19 팬데믹 기간에 안전 검사를 중단했다.

잠복 수사 결과 낙태 시술자들이 기본적인 검사도 하지 않은 채 자가 낙태약을 가정으로 발송해 여성들이 중대한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증거가 발견됐다. 자

가 낙태약은 쉽게 구할 수 있으며, 다른 이들에게 투여할 수도 있다. 또 강압적인 방식으로도 투여될 수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영국 경찰은 지난 2020년 5월 한 임신 여성이 28주 만에 자가 낙태약을 복용한 후 태아가 사망한 사건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 2020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단 6개월간 영국과 웨일스 주민을 대상으로 한 낙태가 10만 9836건 이뤄졌다. 매일 600명의 태아가 살해된 셈이다. 이는 2019년 6개월 평균인 10만 5540명보다 4296명 많다. 영국 웨일즈는 1904~5년에 부흥운동이 일어났던 곳이었다. 이에 앞서 케직 사경회나 청년들의 기도모임 등이 웨일즈의 영적각성 운동을 이끌었다. 수백만 명의 태아를 살해한 이 땅에 교회가 깨어나 회개하고 복음으로 돌아가 다시 영적각성과 부흥의 물결이 일어나도록 기도하자. [GPNEWS]



마음의 눈을 밝히사 (31)

우리는 '복덩어리'로 지음 받았습시다

우리는 예전부터 '복'을 좋아했습니다. 얼마나 좋아했나면, 결혼할 때 신부가 해 가는 혼수 이불 위에 커다랗게 '복(福)'이라는 글자를 새기고, 부부가 베고 자는 베개 양 옆 마구리에도 '복'자를 새겼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손가락 한가운데도 '복', 젓가락 끝에도 줄줄이 '복, 복, 복'자를 새기고, 심지어 밥을 다 먹고 나면 주발과 국그릇 안에도 딱하니 '복'자가 보이게 새겼습니다. 이렇게 '복'에 목말라하고, '복'을 추구하고, '복'을 구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복덩어리로 지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복덩어리로 지으시되 무슨 복을 주시려고 지으셨나요? 이 복의 구체적인 실체와 그 핵심은 대체 뭘까요? 그것은 우리를 단지 피조물 중 하나가 아니라, '사랑과 기쁨의 교제의 대상'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신랑의 기쁨이 신부이듯이 영원한 사랑과 기쁨을 나눌 대상으로 우리를 삼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존재 목적은 먹고 자고, 사고팔고, 시집가고 장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과의 영원한 사랑의 교제'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대단한 업적으로, 굉장한 성공 보따리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만족하고, 그 보호하심에 감사하고, 오직 그분 때문에 그분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것으로 주님을 말할 수 없는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런데 범죄한 뒤 죄로 인해 저주받은 인간에게는 이런 생각이나 주님의 초청이 익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일러스트=김경선

앞에 두려움이 없이 나아가고 완전한 사랑으로 용납 받으며,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즐길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신 것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원형이 훼손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 된 내가 죽고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심으로 원형의 회복을 이루어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사랑과 기쁨으로 마음껏 교제하는 복을 누리는 복덩어리로 회복된 것입니다.

[GPNEWS]

복음을 영화롭게 하라 (김용의.규장.2017)에서 발췌

복음의 소리 316 전화

복음이 뭘지 궁금하신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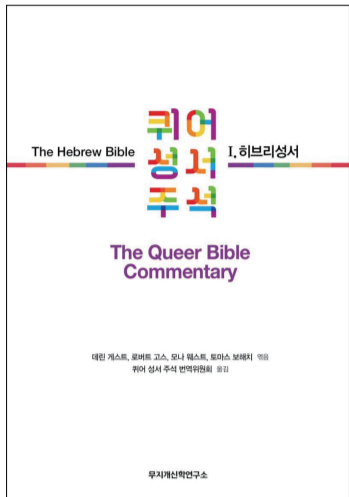
믿음으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연락주세요.

전화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해답이 있습니다.

운영시간: 10-22시
상담시간: 40분

정난전화는 삼가주세요
상담전화 ☎ 1670-3160

‘퀴어성서주석’ 출간... 신학계, ‘퀴어신학은 이단 신학’



동성애 결혼 주제를 맡고 퀴어신학을 연구해 온 임보라 목사 등이 공동 집필한 ‘퀴어성서주석(1. 히브리성서)’이 최근 출간돼 논란이 예상된다. 이 책은 2006년 ‘퀴어 바이블 코멘터리(Queer Bible Commentary)’의 한국어판으로 퀴어신학을 주장해오던 유연희 목사, 이영미 목사, 임보라 목사, 대한성공회 자캐오 신부 등 30여 명이 제작에 참여했다.

텀블러 클라우드 펀딩을 통해 목표금액의 878%를 달성하면서 제작된 이 책은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이 여성과 성소수자들을 억압하고 혐오하는 가부장적 이성애주의자들만의 하나님인지, 아니면 모든 생명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인지를 물으며 가부장 사회의 억압 속에 여성과 성소수자가 겪는 고통과 저항, 해방에 초점을 맞춰 기술됐다고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퀴어신학은 성경에서 ‘동성애’에 관한 것으로 여겨지는 구

절들을 재해석하는데 머물지 않고, 롯-나오미, 다윗-요나단-사울, 예수-요한 등 성경의 몇몇 등장인물이 ‘게이와 레즈비언’이며 그들의 관계를 동성 간 사랑으로 해석한다. 뿐만 아니라 퀴어적 해석은 성경의 세계관적 인식론적 관점에 대한 비판으로 나아간다. ‘퀴어성(무규범성)’을 통해 성경의 이성애 규범성과 이성애 가부장제, 젠더의 위계질서를 비판한 결과, 성경에 나타난 규범과 비규범의 이분화, 정상과 비정상의 경계를 비판함과 동시에 경계를 해체해 버리려 한다. 다시 말해 성경 텍스트에 내포된 가부장제, 위계질서, 일부일체제, 유일신론 등 이데올로기적 구조에 대한 해체 작업을 시도하는 것이다.

이에 신학자들은 퀴어신학이 정통 교회와 신학에 기생하는 이단 신학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개혁신학 원로이자 기독교학술원 원장 김영한 박사(숭실대 기독교대학원 초대 원장, 살롬나비 삼일대표)는 ‘퀴어신학의 도전과 정통개혁신학’이라는 자신의 저서에서 “퀴어신학은 신학이란 용어를 사용해 전통적 교회와 기독교 신학에 기생하면서 그 내용으로는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유대주의자들처럼 사도적 복음을 변질시키고 전통적인 신학을 변질시키는 교회 기생적 이단 신학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단언했다. 퀴어신학이 ‘이단’이라고 까지 주장하는 이유는, 기독교 정통 교리를 부정하기 때문이다. 그는 “정통 개혁신학적 관점에 의하

면, 구약은 일관성 있게 동성애를 ‘가증한 것’으로 정죄했고, 위반에 대한 형벌은 사형이었다. 신약 성경도 동성애에 관해 동일하게 언급하고 있다.”며 “성경은 일관성 있게 동성애를 ‘가증한 짓’으로 천명하고 있다. 동성애가 만연되던 시대에 쓰인 구약과 신약에서 동성애를 아주 엄격히 금하고 있는데, 오늘날 성경을 읽는 우리가 동성애를 인정한다면 얼마나 이상한 일이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또한 지난해 9월 25일에 열린 ‘젠더주의와 성혁명, 퀴어신학에 대한 신학적 고찰’ 포럼에서 광혜원 박사(21세기교회와신학포럼 대표)는 “젠더주의가 기독교계에 끼친 심각한 피해가 진동성애적 퀴어 이론(queer theory)을 발판으로 ‘퀴어신학(queer theology)’이라는 이단적 신학 분파를 만들어낸 일”이라며 “퀴어신학은 인간의 성이 남성이나 여성으로 고정되지 않고 양성이 자유롭게 유동(流動)한다는 사상의 기반 아래, 해체주의적 세계관·인간관이 가세하여 만들어진 신학 사조로, 동성애를 신학적으로 정당화하고 비정상적 동성애를 정상화하는 데 중국적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광 박사는 “퀴어신학이 다른 이단보다 죄질이 훨씬 더 악한 것은, 성결한 하나님 말씀을 음란한 인간의 말로 치환시킬 뿐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음란한 잡신으로 전락시키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GPNEWS]



긴급한 열방의 상황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열방의 교회, 다음세대, 창결하는 죄, 이주민 문제, 영적 전쟁 등의 관점에서 전 세계 언론과 통신원들을 통해 모아진 열방의 소식을 요약, 정리해서 제공합니다. <편집자>

해외 거주 선교사... 코로나 확진 후 의료지원 방안 시급

최근 해외 거주 선교사들의 코로나 확진과 사망 소식이 이어지면서 해외 선교사들의 코로나 확진 후 국내 이송과 의료지원 방안 등이 시급하다고 아이굿뉴스가 지난달 27일 보도했다. 전문가들은 골든타임 확보와 ‘에어 앰블런스’ 긴급 후송, 파송 전 보험 가입 등을 조언했다.

코로나에 걸려도 치료가 불가능한 지역에 있는 사역자들을 기억해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이들의 생명을 보호해주시길 기도합니다. 구체적인 방안과 대응지침이 세워져 실행되게 하시고, 모든 열방이 주님의 구원을 얻길 기도합니다.

中 공산당, 종교 박해 극심... 교회 폐쇄에 수천 명 인권 유린

2020년 중국의 종교 박해가 더욱 극심해 교회 폐쇄와 인권 유린으로 수천 명의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았다고 지난달 23일 영국 크리스천투데이가 보도했다. 중국 인권단체 차이나에이드의 새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공산 정권은 작년 9차례에 걸쳐 교회를 철거하고 주요 지도자들을 소환·심문했다.

중국 공산당이 교회 건물을 폐쇄하고 성도들을 감시할 수 있지만, 교회와 성도들 안에 심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조금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핍박받는 교회들이 높음이나 깊음이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음을 믿고 힘을 얻길 간구합니다.

美 트랜스젠더 운동선수 '생물학적 다른 성별 경기' 출전 금지

미국 케이 아이비 엘라베마 주지사가 트랜스젠더 운동선수가 생물학적으로 다른 성별의 경기 출전을 금지하는 법안에 지난달 23일 서명했다고 에포크타임스가 보도했다. 현재 바이든 행정부는 타고난 성별이 아닌 개인의 성 정체성에 따라 남성, 여성 스포츠 경기에 출전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사망에 이르는 죄에 중독된 이 세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성을 거부하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부패한 생각을 복음의 빛 앞에 밝혀주시고, 십자가 사랑을 모든 영혼들에게 부어주시길 기도합니다.

[GPNEWS]

미 교도소, 부활절 이후 수감자 100여 명 그리스도 영접

미국 테네시주의 김슨 카운티 교도소에서 100여 명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중, 40여 명이 세례를 받기로 하는 등 부활절 이후로 부흥이 일어나고 있다.

기독교일보에 따르면 이 부흥은 김슨 카운티 교도소 폴 토마스(Paul Thomas) 경관의 ‘교회를 재소자들에게 가져오기’라는 아이디어에서 시작됐다. 부활절 이후 월요일 밤(4월 22일)에 김슨 카운티 교도소에는 11명의 초청 연사와 11명으로 구성된 예배팀이 방문했고, 교정 시설은 11개 구역으로 나눠 별도의 예배를 동시에 열었다. 몇 시간의 예배가 끝나고, 그날 밤 100여 명 이상의 재소자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로 결단했고, 그중 40여 명은 세례를 신청했다. 재소자들은 부활절 예배를 마친 뒤 더

예배를 드릴 의무가 없었지만 그들 중 95% 이상이 자발적으로 예배에 참석했다. 이후 예배는 전통적인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 교도소는 수년 동안, 주일 아침마다 매주 다른 설교자를 초청하여 예배를 열었고, 재소자들을 자발적으로 참석할 수 있게 했다. 그러다가 2020년 봄부터 코로나19로 인해 예배가 중단됐다. 토마스는 부활절을 몇 주 앞두고 자신뿐 아니라 교회 주변에 모여드는 재소자들을 보며 “사람들이 코로나 이후 교회로 돌아오기 시작했다고 혼자 생각했다.”며 “어쩌면 이제 다시 교도소에서 교회 생활을 시작해야 할 때일지 모른다.”고 확신했다.

그는 이후 설교자들과 찬양 예배 인도자들을 초청해 예배를 이어가

고 있으며 앞으로 부활절 이후 예배(After-Easter Service)를 이 교도소의 전통으로 지켜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GPNEWS]



▲ 미국 한 교도소 수감자들의 예배 현장. 출처: 페이스북 Gateway Church 캡처

느헤미야52기도 참여교회 및 단체

2021년 5월 10일 ~ 5월 29일

5월 10일 ~ 5월 15일 5.11~14(14~16시) ▶경기 광주 / 창대교회(김**)010-4715-3727, 5.11,13~15(19~22시) ▶전남 신안 / 중부교회(강**)010-5186-0091, 5.14(09~21시) ▶경남 김해 / 진영소망교회(김**)010-4567-8775, 5.14(13~17시) ▶전남 순천 / 우리동네작은교회(강**)010-7129-7224, 5.14(10시)~15(10시) ▶서울 광진 / 한국중앙교회(김**)010-4013-5346, 5.14~15(06~18시) ▶전북 남원 / 은혜의샘교회(김**)010-3106-3632, 그 외 5교회 진행중.

5월 17일 ~ 5월 22일 ▶경남 통영 / 두미교회(이**)010-4734-8567, 5.17(10시)~18(17시) ▶강원 고성 / 아야진교회(홍**)010-3191-8622, 5.17~21(14~17시) ▶경기 안산 / 안산은총교회(전**)010-5337-2771, 5.17~22(10~12시) ▶경남 양산 / 양산교회(전**)010-4501-0059, 5.21(0~24시) ▶제주 조천 / 함덕제일교회(박**)010-5002-2046, 5.21(10~18시) ▶경기 김포 / 꿈꾸는교회(강**)010-4128-0448, 5.21(0시)~22(24시) ▶대전 서구 / 광야아들공동체(정**)010-3697-0641, 5.21~22(09~21시) ▶전북 전주 / 주소망교회(최**)010-4661-4039, 그 외 5교회 진행중.

5월 24일 ~ 5월 29일 ▶전남 신안 / 열방선교센터(강**)010-7364-9982, 5.24~29(11~17시) ▶경기 군포 / 예수생명교회(권**)010-2735-4869, 5.25(11~13시) ▶경기 수원 / 주님의교회(조**)010-5417-9933, 5.25,27~29(19~22시) ▶전남 신안 / 중부교회(강**)010-5186-0091, 5.28(10~18시) ▶경기 김포 / 꿈꾸는교회(강**)010-4128-0448, 5.28(13~17시) ▶전남 순천 / 우리동네작은교회(강**)010-7129-7224, 그 외 3교회 진행중.

* 더 많은 정보는 기도24365홈페이지(www.prayer24365.org)를 참고해주세요. 느헤미야52기도에 함께 하기를 원하는 분은 사전에 연락하시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느헤미야52기도 문의 ☎ 010-8267-4365)



다음세대를 향한 교회의 헌신, 대안학교를 세우다

성도들의 눈물과 기도로 세워진 중앙예담학교

극심한 인본주의와 성공 이데올로기로 뒤덮인 한국사회에서 믿음의 세대를 어떻게 일으켜야 할까? 한국사회의 교육현장이 무너지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져가는 지금, 한국교회는 곳곳에서 주님이 허락한 소명의식으로 다음세대를 살리기 위한 순종의 걸음을 걷고 있는 이들이 있다.

경기도 용인시 수지에 있는 중앙예담학교는 이런 한국교회 성도들의 기도와 눈물로 세워진 교육현장이다. “치열한 입시경쟁과 성공지상주의 아래 꿈을 잃어버리고 있는 아이들의 늘어선 어깨에 푸른 날개를 달아주려 합니다.” 학교법인 예담학원 이사장 고명진 목사(수원중앙침례교회 담임)가 학교 소개 책자에서 밝힌 설립배경이다.

예수 닮은 삶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하나님의 꿈을 품은 인재양성을 위해 수원중앙침례교회 성도들은 2008년부터 기도로 준비하며 토지와 건축비용을 모았다. 금반지를 가지고 온 권사님, 몽골과 캄보디아 선교지에서 1년 치 예산을 모아 보내온 헌금... 그렇게 8000여 명이 기도하며 현금한 수백억 원의 재정으로 이 학교가 2018년 3월, 문을 열었다.

수원중앙침례교회, 10년간 기도하며 헌금해 학교 설립

‘꿈으로 세상을 품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목적대로 살아가는 인재양성’이라는 목표와 ‘우리 하나님이 하신다(우하하)’라는 표어를 내걸며 학교 곳곳에 우하하 강당과 각종 활동실 등이 세워졌다.

현재 전교생 360명과 120명의 교사가 있는 이 학교는 매일 아침 6시 30분에 자율적인 새벽예배를 시작으로 8시 학생 모두 참여하는 성경 QT(Quiet Time)시간인 예담타임으로 본격적인 하루가 시작된다. 매일 성경 한 장의 묵상은 학생뿐 아니라 선생님과 학부모들도 함께한다.

“우리 학교는 기독교 세계관을

지니고 하나님 창조의 원형을 사는 행복한 사람들로 다음세대를 길러내기 위해 새벽기도로 시작하며, 금요일에는 전교생이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나라를 위한 기도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교장 한종혁 선생님의 말이다.

이 같은 기독교 교육의 큰 방향은 거룩한 습관과 영성을 기르는 신앙교육 과정으로 이뤄진다. 창의 독서, 인성디자인학교, 한마음예술교육, 컴퓨팅, 문화창조교육, 스포츠교육 등으로 구성된다.

특히 ‘인성디자인학교’는 학생들이 체계적으로 자신의 인생을 설계하고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학년별로 운영하고 있다. 인생의 큰 목표를 세우고 중학생, 고등학생이 각각 자신에 맞는 장·단기 목표도 세운다. 단기 목표를 이루기 위해 어떻게 자원을 활용하고 스스로 어떻게 공부할 것인지 계획을 세운다. 일주일에 한 번은 선생님과 만나 피드백시간을 갖는다.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경우 어떻게 하면 좋을지 생각해보며, 실패를 통해 성장하는 과정을 겪는다.

거룩한 습관 신앙교육으로 학생 양육

5시에 수업이 끝나면 그 이후부터는 80여 개의 동아리에서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과 특기를 배워나가도록 한다. 그렇게 학생들이 자기 인생의 마스터플랜을 세우고 학생들을 도운 결과, 지난해 1회 졸업생 85%가 대학에 진학했다.

이에 대해 한종혁 교장은 이 비율은 학교 현장에서 어마어마한 비율이라고 말한다. “보통 학교 졸업생의 진학률은 현역 졸업생에 비해 재수 이상의 학생의 합격자 수가 절반 이상에 달한다. 그런데 우리 학교는 현역 졸업생만으로 그런 비율을 달성했다는 것은 어떤 수준의 대학이나를 떠나서 대단한 비율”이라고 말했다. 다시 말해 그만큼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

과 진로를 잘 파악해서 자신의 삶을 시작하는 첫발을 내디딜 수 있도록 성장했다는 것이다.

또한 중1부터 고3학년까지 함께 기숙하고 있는 이 학교는 단체생활을 통해 배려와 양보, 인내와 용납을 배우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기숙사 생활은 만만치 않다. 사소한 문제가 계속 발생한다. ‘난 일찍 자고 싶은데 다른 아이들은 일찍 안자요. 청소를 안 해요. 관계가 어려워요.’ 혼자 자라던 아이들이 단체생활을 하면서 엄청난 싸움이 있다. 그러나 이 안에서 배우게 되



▲ 중앙예담학교 학생들. 제공: 중앙예담학교

는 배려와 섬김의 삶은 이후 인생 길의 양분이 된다. [GPNWS]

“예수님을 닮은 학생을 배출하는 게 꿈”



▲ 중앙예담학교 교장 한종혁 선생님. 제공: 중앙예담학교

다음은 초대 교장 한종혁 선생님과 인터뷰 요약이다.

-어떻게 이 학교에 부임하게 됐나?

“2018년 예담학교가 개교할 무렵, 교장으로 부임했다. 이 학교 오기 전에 다른 고등학교를 32년간 봉직하면서 대안학교에 관심이 많았다. 제도권 학교는 진학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러다 보니 학교생활을 힘들어하는 아이들을 제대로 돌볼 수 없었다. 잘 적응하는 아이들이야 괜찮지만 학교 밖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을 때, 예담학교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처음에는 이곳에 올 만한 학생들을 소개할까 하는 마음으로 문을 두드렸다. 그렇게 예담학교와 연결되어 처음에는 학교에 대한 질문을 구할 때 도움을 주다가 후에는 교장 제안을 받았다. 교감으로 섬기면서 은퇴할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을 때여서 신설학교에 가야 되나 하는 부담이 생겼다. 신설학교는 학교 전체의 시스템을 잡아가지기 때문에 쉬운 일이 아님을 잘 알고 있었다. 편히 쉬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다시 한 번 도전하는 마음으로 이 학교에 오게 됐다.”

- 쉽지 않는 선택 아니었나.

“사람의 힘이라는 건 한정이 있고, 또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쉽게 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이 학교는 만명의 기도 후원자가 있다. 이것이 학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결정하는 데 큰 영향을 끼친다. 육신은 힘들어도 하나님의 계획 하심과 역사하심 때문에 순종의 걸음을 걸을 수 있다. 이곳은 선교지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점점 신앙이 약해져간다. 그래서 적은 수의 학생이지만, 신앙이 밑바탕이 된 아이들이 사회에 진출했을 때, 복음을 전하고 섬기고 나누게 되는 비전을 바라보고 간다.”

- 학생들의 이야기가 궁금하다.

“올해 처음 졸업생을 배출했다. 처음 입학생을 받을 때 했던 면접을 생각하면 감회가 새롭다. 면접이 끝나고 과연 이런 학생들을 데리고 어떻게 3년을 보낼 것인가 답했다. 그러나 목표를 세워놓고 따라올 수 있는 학생을 뽑는 게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학생을 뽑겠다는 게 설립 취지였기 때문에 대부분을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로 뽑았다. 면접했을 때는 정말 힘들 거라고 생각했지만, 확실히 신앙이 결부가 되면 변하는 것을 보았다. 서울 부유한 동네에서 온 학생이 있었다. 처음엔 적응을 못하더니 나중에는 교회에 유일하게 성경을 들고 다니는 아이로 소문이 나기도 했다. 학생들은 학교 앞에서 찬양을 하기도 한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다. 저녁시간에 마음

에서 우리나라는 학생들이 거리 전도를 하고 이웃을 섬긴다. 처음에 들어올 때는 신앙이 없던 아이들이었는데 말이다.”

- 기도의 능력이 놀랍다. 그런 졸업생들의 진로는 어떻게 됐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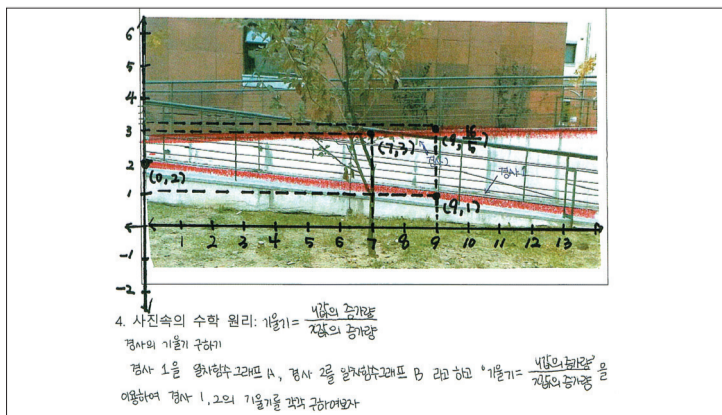
“첫해 졸업생 80명 중에 64명이 대학에 진학했다. 대부분 1학년 때부터 스스로 생각한 인생 디자인을 통해 진학했다. 그러니 만족도가 높다. 학생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한다. 그것도 많은 아이들이... 하나 더 욕심이 나는 게 있다. 졸업한 후에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위에 영향력을 미치는 삶을 살기 바란다. 예수님을 닮은 삶을 일평생 가져갔으면 좋겠다.”

- 어려움은 없었나?

“어려운 때도 있다. 다양한 유형의 청소년을 지도하고, 마음 잡고 학교 다니도록 하는 일이 쉽지 않다. 매우 어려운 학생이 있었는데, 매일 붙들고 큐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는 지난한 시간이 지나며 학생들이 주님을 만나고 변화되어 졸업도 잘했다.”

- 기독교 학교들의 신앙 교육이 어렵다는데 어떠합니까?

“예담학교는 교육부의 인가를 받은 학력 인정 대안학교다. 그러나 국가에서 재정을 지원받지는 않는다. 신앙 교육을 반드시 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일반 사립학교는 고유한 학교 설립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 기독교 학교임에도 종교를 교양 과목의 하나로 보고 교육과정도 교육청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이 때문에 재정 지원은 오직 교회가 오롯이 담당하고 있다. 다음세대를 살려야 하기 때문이다.” [GPNWS]



▲ 학교 소식지에 게재된 학생들의 '수학사진대회' 출품작. 제공: 중앙예담학교

기획 | 창조 이야기 (54)

130년 전 등장한 거짓 진화의 증거... 교과서에서 삭제해야

본지는 창조론 전문가인 미국 켄트 호빈드 박사의 창조론 강의를 요약, 소개하고 있다. 호빈드 박사의 강의는 성경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흥미롭게 설명하며, 진화론이 거짓 믿음 체계임을 명쾌하게 밝히고 있다. <편집자>

진화론자들은 '비평적 사고를 가르친다.'는 원칙으로 아이들에게 질문한다. "아직도 인간이 진화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나 이 질문은 '인간이 진화했다.'는 추측이 내재돼 있다. 이 질문은 '왜 코끼리가 오렌지색인가?'라고 묻는 것과 같다. 코끼리는 오렌지색이 아니다. 이것은 비평적 사고를 배우는 것이 아니다. 소련 공산당의 주입식 세뇌적 질문이다. 그러나 아이들은 이 수업을 마치면 자기들이 비평적 사고를 할 줄 안다고 생각한다.

또한 진화론자들은 '상동기관이라는 진화의 증거가 있다.'고 가르친다. 인간의 손에 요골과 척골이라는 두 개의 뼈가 있다. 악어 앞다리에 있는 두 개의 뼈 또한 요골과 척골이라고 부른다. 이것을 인간과 악어가 친척이라는 증거라고 주장

한다. 교과서는 '상동기관은 이 동물들이 공통조상으로부터 진화했다는 증거를 제공한다.'면서 '비평적으로 생각하자. 뼈가 같다. 그게

이 모두 친척 관계라고 제안한다. 그들은 아마 공통조상으로부터 진화했을 것'이라고 하지만, 이것은 거짓이다. 처음부터 상동적이지 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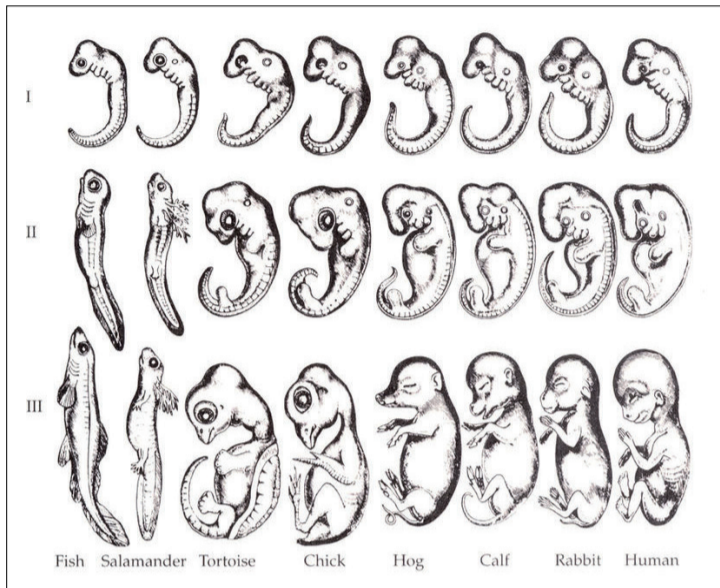
의 배아에서 물고기 같은 구조가 존재한다는 것은 이 동물들이 물고기에서 진화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설명한다. 기본적인 물고기 발생의 그림을 보여주며 '마치 배아가 자신의 기원을 기억하고 발생과정 중에 그것을 복제하는 것 같다.'고 말한다. 그들은 배아에 물고기 같은 아가미가 있다고 가르치지만, 그것은 아가미구멍이 아니다. 배아에서 보이는 피부의 주름들은 귀의 뼈와 목구멍의 분비선으로 자라나게 된다. 그것들은 호흡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독일의 발생학 교수였던 헤켈은 그의 사상의 전환점은 1860년에 다윈의 책을 읽었을 때였다고 말했다. 그는 책을 읽고 '얼마나 훌륭한 이론인가! 증거만 있다면 좋겠는데.'라고 생각했지만 증거가 나오지 않자 증거를 만들기로 결심했다. 그는 개와 사람의 배아 그림을 가져다가 비슷하게 보이도록 바꿔서 서로 연관되어 있다고 증명하려고 했다. 헤켈은 그의 조작된 그림을 거대한 포스터로 만들어 독일 전역을 여행하며 사람들

이 진화를 믿도록 했다. 이것은 명백한 다음 질문으로 인도했다. '진화가 사실이라면, 어느 인종이 가장 많이 진화했는가?' 우리는 독일인이 그게 누구라고 생각했는지 잘 알고 있다.

1875년, 그가 재직하던 대학은 재판을 통해 그에게 사기혐의로 유죄를 확정했다. 그러나 생물발생법칙이 1875년 이래로 틀렸다고 증명되었음에도 교과서에서 빼내지 않는다. '진화적 분석'이라는 1998년 판의 대학 교과서에도 어니스트 헤켈의 도표가 포함되어 있으며, 전 세계 교과서에는 여전히 아기들이 아가미 주머니를 가지고 있다고 가르친다.

우리는 교과서에서 거짓말을 빼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아기들에게 아가미가 있다고 거짓말하지 않으면, 진화를 믿지 않으면 대학에 가기 위한 SAT나 ACT테스트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없다. 거짓말로 증명된 지 130년이 지났음에도, 왜 교과서에는 아직도 이러한 내용이 있는 것인지 생각해봐야 한다. [GPNEWS]



▲ 독일의 발생학 교수였던 헤켈이 조작한 생물발생법칙 배아 그림. 출처: 위키피디아

우리가 친척이라는 증거다. 공통조상으로부터 앞다리가 진화했다.'고 말한다. 또 다른 교과서는 '비교 해부학은 진화의 더 많은 증거를 제공한다. 공통성은 다른 척추동물들

을 뿐더러, 그렇다 해도 그것이 공통조상을 증명하지 못한다. 오히려 그들에게 공통설계자가 있다는 것을 증명할 뿐이다. 한 아일랜드 교과서는 '다른 종들



선교 통신

콜롬비아 기독교인, 코로나와 공산주의 게릴라 공격에 이중고

라틴 아메리카에서 코로나 봉쇄와 더불어 게릴라 집단의 공격으로 기독교인들이 이중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최근 한국 순교자의소리가 전했다.

지난 4월 콜롬비아 전역에서 코로나바이러스 봉쇄 조치가 시행되자, 콜롬비아 국내 '레드존'의 게릴라 집단들이 기독교인에 대한 폭력적 공격을 감행했다. 레드존은 폭력적인 공산주의 반군 세력과 무장 단체들이 스스로를 방어할 수 없는 마을 주민들을 잔혹하게 억압하는 무법 지대다. 지난 몇 해 동안 악명 높았던 잔혹 행위가 다시 돌아온 것이다. 이에 순교자의소리 현지 사역자는 "봉쇄 조치로 마을에서 군대가 철수하자 그걸 기회로 삼았다. 게릴라군은 집집마다 다니면서 사람들을 끌어내 총을 쏜다."고 전했다.

한 동영상에는 콜롬비아 무장 혁명군(FARC) 대원들이 이 집, 저 집을 다니며 자신들에게 저항하는 사람을 찾고 있는 모습이 담겨있다. 그들이 하루에 살해한 사람은 40~50명으로 추정된다.

공산주의 게릴라들은 기독교인들을 집중적으로 공격했다. 특히 한때 콜롬비아 무장 혁명군 대원이었다가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집단을 떠난 사람들이 집중 공격을 받았다. 또한 게릴라들은 봉쇄 기간 동안 다수의 교회를 폐쇄했다. 교회 문에 쇠사슬을 채우고, 스프레이 페인트로 교회 건물에 자신들의 이름을 적었다. 누군가 교회 문을 연다면,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협박했다.

잔혹한 폭력 속에서도 예수를 구주로 영접

그러나 콜롬비아인들은 증가하는 폭력 속에서도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있다. 게릴라 집단들은 만화 성경 '액션 바이블'을 종교 선전물로 여겨 몰수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어린이들은 성경을 읽고 있으며, 부모들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사랑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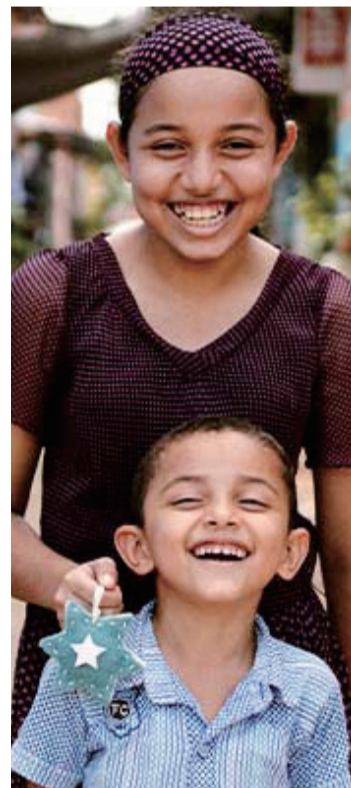
또한 순교자의소리가 보급한 학용품과 위생용품, 장난감과 성경이 든 성탄절 선물 상자는 어린이들이 다른 기독교 가정의 지체들이

자신들을 사랑한다는 점을 확신하게 하는 통로가 된다. 콜롬비아 무장 혁명군도 종종 어린이들의 가 입을 유도하기 위해 새 옷과 신발을 약속한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자매들이 자신을 보살펴주고 있음을 알게 된 아이들이 반군에 가입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러한 사랑은 한 소년의 인생 향로를 바꿨다. 카를로스(6년)는 열네 살이던 6년 전, 순교자의소리로부터 성탄절 선물 상자를 받았다. 당시 카를로스가 아버지를 잃은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다. 그의 아버지는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살해당했다. 극심한 고통의 시기에 받았던 선물은 카를로스가 기독교인 형제자매들에게 사랑받고 있음을 확신할 수 있게 해주었다. 현재 카를로스는 선교사가 됐다. 그는 아직도 성탄절 선물 상자를 받았던 기쁨을 기억한다.

복음은 결코 봉쇄될 수 없다

폭력과 교회 건물 폐쇄에도 불구하고, 최전방 사역자들은 하나님



▲ 기독교 신앙으로 아버지가 살해당했으나 믿음으로 자라가는 남매, 다니엘라와 세바스티안. 출처: 오픈도어선교회

나라의 일을 지속하고 있다. 게릴라 집단들은 집집마다 다니며 기독교인들을 살해했지만, 기독교인들은 집집마다 다니며 성도들을 보살핀다. 기독교인들은 조심스럽지만 담대하게 계속 복음을 전파하고 있다. 복음은 결코 봉쇄될 수 없다는 진리를 알기 때문이다. [GPNEWS]

복음의 능력

성령의 음성이 안 들리는 이유

성령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자녀들에게 주시는 선물이다. 성령은 창에 찢린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흘러가는 선물이다. 그 성령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고 해서 우리를 향한 그분의 일이 다 끝난 것은 아니다. 성령님은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이 그분의 뜻과 조화를 이룰 때까지 계속 일하신다. 성령님은 우리가 거듭난 후에도 말씀과 기도와 징계와 고난을 통해 계속해서 우리를 성장하게 하신다. 그러기에 우리의 내면에서 들리는 성령님의 음성을 묵살하는 것은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깊이 명심해야 한다. 만약 성령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것이 말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듣지 않는 것이다. [GPNEWS]

성령님 (A.W. 토저)에서 발췌

나눔&나눔 삶의 나눔으로 되새겨 보는 하나님의 은혜

썩은 나무로 만든 십자가... 자아가 죽어야 주님이 쓰신다

나무 십자가 조각가 **우예본** 권사(슈브아트갤러리 대표)



© 복음기도신문

돌 같은 나를 품으신 예수님을 형상화한 십자가. '예수는 나의 힘이요.'를 외치며 바라보는 사람에게 불끈 힘을 주는 나무 십자가. '이제 어찌할꼬.' 답답한 마음을 표현한 나무 십자가. 그리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담은 십자가. 참으로 다양한 모습의 나무 십자가를 만날 수 있는 십자가 슈브아트갤러리(경기도 안성) 대표 우예본 권사를 만났다.

- 정말 이런 형상의 십자가는 처음입니다. 이런 십자가를 만들게 된 데는 많은 사연이 있겠지요.

"한때 1000억 원대 매출을 올리는 회사를 경영하기도 했어요. 그러다 고난 끝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으면 재정적으로 축복해주실 것으로 알았어요. 그러나 주님의 뜻은 그렇지 않았어요. 한동안 마치 제 몸을 거꾸로 세워놓고 눈이 땅 속에 박혀 있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죽고 싶었죠. 그런 결심도 했지만, 실제로

도하러 올라갔어요. 어느 날 기도하고 주먹밥을 우걱우걱 먹는데 근처에 손바닥만한 소나무 관솔에서 주님의 모습이 보였어요. 그것을 집으로 가져왔어요. 문구용 커터 칼로 깎았어요. 그게 십자가 목걸이가 됐어요. 뭐라도 붙잡고 싶은 마음에 십자가를 들고 울고 기도하며 감격했던 기억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때가 2012년이었는데 그렇게 나무 십자가가 제 삶에 깊이 개입하게 됐네요."

- 놀랍습니다. 어떻게 죽은 소나무에서 주님의 모습을 보셨을까요?

"소나무는 죽을 때 두 가지 일을 해요. 가장 빨리 썩을 부분을 결정하고 또 수천 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을 기름(송진)을 남기죠. 썩은 부분에 송진이 쌓이는데 그렇게 남은 것을 관솔이라고 해요. 그 관솔이 아주 오래되면 호박색이 돼요. 제가 산에서 집으로 가져온 것은 그저 그런 썩은 나무의 관솔일

추위를 달래가며 작업을 했어요. 목장갑 살 돈이 없어서 길거리에서 떨어진 장갑을 주워다가 빨아서 손가락 부분만 잘라서 몇 겹씩 묶어 사용했어요. 칼에 베어 손에 피를 흘린 날도 많았죠."

썩은 나무에서 주님의 형상 발견

- 그렇게 십자가를 만드셨군요.

"순종하면 주님의 계획이 있을 것으로 여겼어요. 그러던 어느 날 어떤 분이 제게 떡을 보내셨어요. 제가 한 목사님에게 감사의 표로 십자가 목걸이를 선물했는데 그것을 보고 제게 십자가를 부탁하려고 미리 떡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 명 두 명씩 십자가를 가져가곤 했어요. 그리고 저는 또 한 동안 성경 필사를 했어요. 처음에는 지나간 다이어리에 기록했어요. 노트를 살 돈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기독교백화점 사장님이 성경 필사용 노트와 볼펜이 있다고 하시며 세일해서 주셨어요. 그것으로 6개월 만에 성경 필사를 완성했어요. 정말 하루에 2~3시간만 자면서 열심히 기쁜 마음으로 썼어요. 당시는 자녀들이 있었는데 제가 그렇게 어렵게 사는 것을 몰랐어요. 단지 그림을 그린다니까 물감을 선물해줬어요. 그것으로 그림을 그리고, 십자가와 함께 첫 전시회를 갖게 됐어요.

- 미술을 전공하셨나요?

"네. 대학 때 미술을 전공하고 학교 졸업하고 미술학원을 운영했어요. 어린 시절부터 돈을 많이 벌고 싶어서 별인 일이예요. 학교 졸업하자마자 부산에서 3~4명의 수강생으로 학원을 시작했어요. 나중에는 50명 넘는 학생이 몰려왔어요. 덕분에 열 개 이상의 학원을 운영하며, 매일 새벽 2~4시에 집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아무리 많이 벌어도 10억 원 이상은 안되더군요. 돈을 더 벌려고, 자동차부품회사, 케미칼 회사 등을 했어요. 그런데 시장의 특성을 잘 모르고 사업을 확장하다가 한계에 이르고, 몇 년간 행정재판을 받게 되면서 어려운 시간을 보내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마침내 부도가 나면서 긴 여정이 끝나게 된 거죠"

- 참 다양한 삶을 살아오셨군요. 조금 전에 말씀하시던 그 전시회는 어떻게 됐나요?

"조명도 없는 일반 가정집에서 전시회를 가졌어요. 십자가 100점과

그림 30점을 걸어놨는데 모두 판매됐어요. 그때가 2016년이예요. 난생 처음으로 돈을 만진 기분이었어요. 식탁에 펼쳐놓고 돈을 한참 구경했어요. 이 돈으로 무엇을 할까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무렵 제 작업실 근처에 조금 이상한 종교집단에 빠져 재산과 삶을 탕진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수백만 원을 들고 그곳에 찾아갔어요. 그곳에 계신 몇 분들이 제게 도움을 요청해서 제가 그곳에서 몇 사람을 데리고 나왔죠. 처음에는 위협적이었는데 그 돈을 받고 더 이상 우리의 측근들을 건드리지 않더군요. 남은 그 돈으로 다시 재료를 구입해서 십자가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나무 십자가와 그림 전시회

- 작업실은 있었나요?

"처음에는 한옥을 만드는 어떤 노인이 운영하는 작업장 한 칸에서 시작했어요. 처마 밑에 나무가 잔뜩 쌓여 있는 집이었어요. 그분이 쓰고 버리는 손바닥만한 나무 조각들을 얻어서 작업했어요. 그분이 버린 나무는 70~100년 된 것들이었어요. 제가 십자가 만들기는 좋았죠. 그러다 지인의 도움으로 창고형 60평 공방을 후원 받아서 작업장을 옮기게 되고, 일 년간 열심히 작업을 하고 전시회를 가졌어요. 사람들의 반응이 좋아 두 달간 연장 전시로 모든 작품이 다 판매됐어요. 그리고 올해 2021년 초에 이곳 안성으로 이사했어요."

- 이런 십자가를 만드시는 선생님의 십자가에 대한 신앙은 어떻게 형성됐는지 듣고 싶습니다.

"십수 년 전 제가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 동생이 회사에 출근하며

노트북으로 목사님 설교를 틀어놓고 갔어요. 그런데 동생만 집을 나서면 바로 끄고 듣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노트북이 잘 꺼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창틀에 머리를 기대고 말씀을 듣는데 저도 모르게 정자세로 설교를 듣고 있었어요. 갑자기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가 깨달아지면서 주님이 제 앞에서 손을 내미시는 것이 느껴졌어요.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어요. 제가 주님 손을 잡는 순간 온몸이 감전되듯이 뜨거웠어요. 그리고 울면서 방 안에서 펄쩍펄쩍 뛰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를 외쳤죠. 그리고 성경책을 펴놓고 저도 모르게 찬송가를 불렀어요. 다른 사람에게 받은 칭찬이 모두 회개거리였어요. 저의 교만함을 깨닫게 되고, 저라는 존재가 너무 더럽게 느껴졌어요. 그날 이후로 매일 그렇게 고백하며 회개했어요."

- 그런 은혜가 있으시군요. 그래서 십자가가 남다르게 느껴졌겠군요.

"나무를 가까이 하다 보니 썩은 나무가 좋아지더군요. 나무는 일단 완전히 죽어야 자신을 드러내거든요. 그렇듯 사람도 자아가 완전히 죽어야 주님이 그 사람을 편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죠. 나무에서 깨달은 은혜예요. 또 나무로 작업을 시작하면 마음속으로 그 나무의 덩치만큼 '그런 크기의 십자가가 나오겠구나.' 그렇게 상상을 하죠. 그런데 죽은 나무다 보니 그 안에 살고 있던 벌레도 나오고 잘라버릴 부분이 많아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아주 조그만 십자가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주님은 내가 이렇게 허물 많고 더러워도 99%를 없애고 단 1%를 쓰시기 위해 나를 이렇게 사용하시는구나. 놀라운 은혜였어요. 그 이후에 작업할 때 스케치를 하지 않아요. 그냥 나무 앞에서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작업을 하죠. 또 나무 안에 돌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 돌을 빼내려고 하면 주님이 '아니야 그 돌은 너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뒤요. 놀라운 경험인데요, 돌은 나무를 품지 않지만, 나무는 돌을 품어요. 돌이 나무에 꽂히면 나무는 돌이 숨쉬는 공간을 허용해요. 나무는 자기의 살을 다 썩게 만들면서 공간을 돌에게 내어주는 거죠. 참 놀랍죠. '아, 주님, 제가 돌이군요. 주님께 박



▲ 공방에서 작업하고 있는 우예본 권사. 제공: 슈브아트갤러리

는 죽을 수 없었어요. 그런 상황에 십자가를 만들었습니다."

생애 생명을 잃을 만큼 좌절

- 십자가를 만난 상황을 조금 더 나눠주세요.

"풍족하게 살다가 사업에 실패하고 통장에 돈 한 푼 없으니 정말 어려웠어요. 그래서 평택 거리에 돈을 주우러 나갔어요. 땅에 시선을 박고 돌아다니니 10원짜리, 100원짜리 때로는 1000원짜리가 보이더군요. 저녁에 그 돈을 펼쳐놓고 기도했어요. '아버지 하나님. 이런 동전이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이런 작은 돈으로도 주님은 놀라운 역사를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한참 모은 돈을 나누고 동사무소에서 얻어온 이면지 종이로 곱게 싸서 은행에 갔어요. 하지만 은행측은 동전받던 날이 아니라 합니다. 거금 3만 2015원이었어요. 다시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부터 하겠다고. 그래서 산으로 기

뻘이였죠. 그런데 저는 그 안에 주님이 계실 것이라 생각이 들어 칼로 하루 종일 다듬기 시작했어요. 그 나무에서 십자가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계속 만들어 벽에도 걸고 집안 곳곳에 걸어놓고 주님과 대화를 했어요."

- 썩은 나무에서 십자가를 발견했다는 게 은혜네요.

"아주 늦게 주님을 영접했는데,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았어요. 하지만 구체적인 계획이나 목표는 없었어요. 그저 기도에 집중하겠다는 마음으로 나무를 깎고, 십자가를 만들었어요. 지금도 기도하며 나무를 깎는데 하루 12시간씩 기도하는 셈이죠. 그렇게 나무를 깎는데 나무에서 주님의 활짝 웃는 모습이 보이는 듯 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돈이 없어 그저 문구점에 파는 커터 칼을 구입해 작업했어요. 그런데 그 커터 날을 살 돈도 없고, 참 힘들었어요. 베란다에 방석을 깔아 놓고 겨울에는 두터운 외투를 입고



▲ 돌을 품은 나무 십자가. © 복음기도신문

(6면에 계속)



교육현장에서 배우는 진짜 전쟁하는 법

주님은 다음세대를 위한 교육 선교의 자리로 불러주시며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 “몸의 사육에 순종하지 말고, 너의 몸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롬 6:12~14) ‘아멘! 몸의 사육에 절대 순종하지 않겠습니다. 제 전부를 주님께, 의의 무기로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다소 호기롭게 현장으로 향했다. 하지만 현장에서 마주하게 된 것은 내가 얼마나 몸의 사육에 순종하기 빠른 존재적 죄인인지였다. 피곤하면 더 눕고 싶고, 배고프면 더 먹고 싶고, 더 편하고 싶고... 무엇보다 매일 내 존재가 얼마나 자연스럽게 죄와 세상의 정욕적인 것들을 향하는지 보게 되었다. 그런 내가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음을 믿지 않고 시간과 마음을 주님이 아닌 나에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되었다. 주님이 주신 약속을 내가 완전히 망쳐버린 것만 같았다. 결코 몸의 사육에 순종하지 않겠다는 결단이 무색하게 실패한 것 같아서 주님의 은혜만 매달릴 수밖에 없을 때, 주님이 말



일러스트=고은선

씀해주셨다. ‘처음부터 이것은 내 약속이었던단다! 내가 창세전부터 계획하고 너를 이 때에, 이 말씀으로, 이 자리로 부른 하나님이다. 내가 이미 이루었고 이를 것이다!’ 주님은 모든 약속이 이루어진 십자가를 다시금 선포해주셨고는 다른 것이 없음을 말씀해주셨다. 매일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은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그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전부였다. 너무나 실제적인 몸의 사육은 순간순간 드러났다. 하지만 주님이 그때마다 더 분명한 실재인 주님의 십자가를 선포해주셨고 순종하는 기쁨을 알려주셨다. 내게 가장 필요한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셨다.

그리고 주님은 나에게만 신실한 하나님이 아닌 모두에게 신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려주셨다. 나도 오직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죄인이면서 내가 섬기는 학생들이 조금만 잘못되면 얼마나 쉽게 판단하고, 분을 내고, 지적하는지... 하나님이 나와 같지 않으시다는 것이 참 다행이었다. 주님은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할 것을 말씀해주셨다. 무엇보다 전혀 자격 없는 나를 부르시고, 신실하게 인도해주시는 주님이 내가 난리를 치지 않아도 이미 그 학생들이 인도해주고 계심을 말씀

해주셨다. 나는 다만 믿음으로 기도하면 되는 것이었다. 사람이 일하면 사람이 일할 뿐이지만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하셨다! 주님은 나를 내 삶에 얽매이는 자가 아닌 주님의 의의 무기로, 중보자로 불러주셨음을 깨닫게 되었다.

숙소에서 학생들의 장난이 멈추지 않을 때면, 학생들끼리 벌이는 대립과 말다툼이 일어날 때면, 감사함 없이 상황이나 환경에 대해 불평을 늘어놓을 때면, 참지 못하고 내가 어떻게든 그 모습을 고쳐보려는 교만한 충동이 일어나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그때마다 내가 어떤 은혜를 입은 자인지 기억할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셨다. 나를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이 동일하게 그 지체를 붙들고 계심을 신뢰하며 중보하게 하셨다. 진짜 전쟁하는 법을 주님은 내게 알려주셨고 계속 배우게 하신다. 예수님만 승리하고 또 승리할 것을 기대한다. 나를 의의 무기로 사용하고야 마시는 주님을 찬양한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GPNEWS]

박은준

복음의 소리 316



이 코너는 GPM(복음과기도미디어)이 운영하는 복음의 소리 316전화(1670-3160)의 다양한 상담사례를 요약, 소개합니다. 영혼의 목마름 가운데 마음을 나눠준 내담자들의 경험과 나눔이 동일한 어려움에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소망합니다. 귀한 통로 된 내담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편집자>

관계의 어려움... 분석은 멈춰야

Q 30대 자매입니다. 교회 안에 마음을 어렵게 하는 지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제를 하던 중 저와 동일하게 그 지체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른 자매와 함께 생각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관계가 얽혀서 오히려 그분으로부터 공격받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 생각을 하느라 다른 일을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관계의 문제는 공동체에서 흔히 겪는 어려움 중의 하나입니다. 이런 문제를 겪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할 일은 끊임없이 문제를 분석하는 이런저런 생각을 멈추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자기 입장과 억울함이 있고, 모두들 자기 입장에서 분석하는 일을 그만두지 않으면 끝이 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문제를 끝내려고 억지로 화해한다 해도 마음에 앙금이 남아 언제든 다시 불붙는 일도 허다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생각을 멈추고, 자신이 주님 앞에서 그렇게 다른 사람에 대해 이야기한 것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다루심 받는 일이 필요합니다. 이때 다른 사람의 죄가 아닌, 자신의 죄에 대해 주님이 비추어주시는 빛 앞에 정직하게 직면하고 복음으로 반응하시길 권합니다. 그 후에 함께 얽힌 관계의 지체들도 주님의 말씀에만 반응하게 되길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분들도 주님이 만져주실 것을 기도로 간구하고, 주님 말씀대로 용서와 화해를 청하는 순종을 드릴 때 주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행여 결과가 기대와 다르더라도 주님께 순종을 드린 것과, 주님께서 계속 일하실 것을 신뢰하고 기다릴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할 것입니다. 진정 나의 죄와 연약함을 회개하고 관계의 회복을 원했다면, 우리의 기도와 순종의 결과가 예상과 다를 때 나타나는 내면의 태도로 자매님의 마음을 또한 점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GPNEWS]

부흥을 위하여

각국 NGO, 탈북민과 북 주민 돕기 온라인 행사 펼쳐

한반도에서 가장 가까이에서 고통받는 이웃, 북한 주민에 대한 다양한 이슈나 사건, 이야기를 소개한다. <편집자>

국제사회에서 탈북민의 구출과 정착, 또는 북한 주민들을 돕기 위한 다양한 온라인 기금모금 행사가 마련되고 있다.

자유아시아방송에 따르면 미국 북한인권단체 링크(LiNK)를 후원하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밀스대학교(Mills College) 동아리는 오는 30일 1000달러 모금을 목표로 온라인 김치 요리강좌를 개최한다. 소액의 입장권 판매를 통해 모인 기금은 링크가 하고 있는 탈북민 구출과 정착, 북한 인권의 실상을 미국 사회에 알리는 ‘체인지 더 네러티브

(Change the narrative)’ 프로그램에 쓰일 예정이다.

또 한국 내 탈북민 대상 무료 영어 교육을 통해 더 많은 탈북민들이 국제 무대에서 영어로 북한 인권에 대한 이야기를 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설립된 민간단체 FSI(Freedom Speakers International)는 오는 5월 15일 ‘내가 생각하는 자유(What freedom means to me)’를 주제로 온라인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 행사에는 이 단체에서 주관한 영어 말하기 대회에서 수상한 탈북민들이 발표자로 나서 자신의 경험과 자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토론회를 통한 수익금은 FSI의 탈북민 영어 교육 운영을 후원하게 된다. 북한 등 전 세계 기록

교 탄압국을 돕는 오픈도어 선교회 영국지부(Open Doors UK)는 작년 코로나 19로 연기됐던 기금모금 마린 스포츠 행사를 올해 가상 마라톤 대회 형식으로 다시 개최한다. 오픈도어 측은 홈페이지에 오는 9월 12일과 10월 3일 가상으로 열리는 ‘그레이트 노스런(Great North Run)’과



▲ 미국 컬럼비아대학교 링크 동아리. 출처: columbia.edu 캡처

‘버추어 버진 머니 런던 마라톤(Virtual Virgin Money London Marathon)’ 참가자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한 북한자유주간 행사가 지난달 24일부터 30일까지 미국 워싱턴에서 열렸다. 제18회를 맞는 북한자유주간은 ‘열려라! 북한(Open! North Korea)’이라는 주제로,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다양한 토론과 행사가 진행됐다. 또한 북한주민들을 위한 기도회에 국내 탈북민들과 이번 북한자유주간을 주관하는 미국의 북한자유연합 수잔 솔티 대표 등 미국 측 인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이뤄졌다. 이들은

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기금 모금 행사를 통해 모인 후원은 북중 접경 지역을 통해

북한으로 보내는 식품, 의약품 구매 등에 사용할 예정이다. [GPNEWS]

‘열려라! 북한’ 북한자유주간, 미 워싱턴에서 열려

북한 내 정치범수용소의 폐지, 중국 내 탈북민들에 대한 강제복송 중지 등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 무엇보다 복음으로 북한이 재건되기를 간절히 바랐다.

미국 의원들은 인사말 영상을 통해 북한 인권을 위한 노력을 다짐했다. 아이다호주 집 리쉬 상원의원은 “미국인들은 북한 주민들의 행복을 위해 크나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며 “우리는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자유를 위해 노력하

고 지지할 것”이라고 전했다. 텍사스주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은 “미국은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다. 김정은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목소리를 내지 못하게 막을 것”이라며 “하지만 저는 여러분의 용기와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독재자가 쳐놓은 벽을 넘어서 우리 미국인들에게 더욱더 크고 명확하게 들리고 있다는 점을 이야기해 드리고 싶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GPNEWS]

뷰즈 인 아트 Views in Art

박주영의 <선샤인 레이디 (Sunshine Lady)>

어머니가 지나온 자리

한국화가 박주영은 스스로를 ‘그림으로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고 소개한다. 바람을 소재로 꾸준히 작업해 온 작가의 그림에는 바람에 나부끼는 수많은 잎사귀나 실타래 같은 형태가 늘 가득하다. 한 획, 한 획으로 이루어진 형태는 바람의 움직임을 기록한 것이다. 여기에서 바람이란 공기의 흐름으로써 바람(wind), 바라는 바람(wish)의 이중적 의미기에, 바람을 기록한 형태들 또한 작가 내면에 흐르는 여러 생각이나, 자아와의 싸움과도 같았던 기도의 흔적으로 보인다.

이러한 작품 중 특별히 <선샤인 레이디>는 작가 어머니의 기도 의자를 그린 것으로, 어머니의 생전에 맞춰 작가가 헌정한 어머니의 초상화인 셈이다. 우아하고 고풍스러운 의자 디자인은 어머니의 여성성을 암시하지만, 닳고 헤어진 의자 모서리에 헌신과 인내, 기다림이 차곡차곡 쌓여 있다. 의자 주변과 왼쪽 창에서 쏟아져 들어오는 바람의 흔적

들은 과거와 현재까지 지속하고 있는 어머니 내면의 움직임을 보여준다. 사실 내면이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어머니의 기도가 일방적인 소원 성취를 위함이 아니라는 것을 드러낸다. 어머니는 때론 두려움, 아픔, 고통이 요동치는 내면을 끌어안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간다. 이 감정들은 한순간에 말끔해지지 않기에, 번번이 씨름으로 이어지기 마련이다. 움직이는 내면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완전히 잠잠하여 내려놓을 때까지 인내의 싸움을 이어간 어머니의 기도는 결국 아름다운 빛으로 열매를 맺는다. 아니,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열매 맺도록 이끌어 주신다. 낡은 기도 의자는 이제 주변을 그림자가 아닌, 환한 빛으로 물들인다. 무엇보다 이 고백이 다른 누구의 것이 아니라, 바로 자녀들의 고백이라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기도의 자리를 지킨 어머니에게 주신 가장 특별한 선물이 아닐까. [GPNEWS]

이상윤 미술평론가



▲ 작품설명: 박주영, <선샤인 레이디 (Sunshine Lady)>, 2021, 장지에 채색, 45.5x33.3cm

☞ 지면으로 보는 인터넷 복음기도신문

몽족 마을 무명 선교사의 놀라운 현장



▲ 푸앙락 선교사. 제공: 오영철 선교사

푸앙락은 올해 42세의 여성 선교사다. 매흥손도의 갱흥교회에서 개척한 몽족마을 후웨이마을을 담임하고 있다. 하지만 그녀가 소위 '선교사' 인가라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전통적인 선교사라고 하기에는 부족한 점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선교사로서 파송예배를 드린 적도 없고, 선교사로 임명한 단체도 없다. 선교후원회도 없고 선교사 훈련을 공식적으로 받은 적도 없다. 그녀는 외형적으로 눈에 띄는 여인이 아니다. 평범하다 못하여 연약함마저 느껴진다. 정규적인 학교는 초등학교만 나왔고 통신과 정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했다. 신학

과정은 3개월 단기과정을 한 이후 비정규 과정으로 공부한 것이 전부다. 육체적으로나 학력으로 자랑할 만한 것이 없다. 그런데 그의 몽족을 위한 사역의 여정들을 이야기할 때는 외적인 연약함과 대조적인 에너지가 느껴진다.

“작년에 종교지도자가 회심하여 40명 정도의 가족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35가구인데 이제 102명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했습니다.” 선교지에서 소망하는 일이 벌어졌다. 하나님의 역사가 깊은 산속에서 역동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증거다. 그녀의 몽족 교회를 위한 헌신이 공극했다. “카렌 여성으로 어떻게 해서 몽족 교회에서 일을 하게 됐습니까?” 2008년 그 마을을 방문하게 된 그녀는 한 노인의 간청을 잊을 수가 없었다고 한다.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그 마을의 영혼을 돌보아야 하겠다는 부르심을 느꼈다고. 이후로 그녀는 매 주일마다 몽족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고 예배를 인도했다. 그때 그녀의 나이가 21세였다.

“처음 갱흥교회 일부 교인들은 몽족 마을에 정기적으로 가는 것을 좋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가지 않으면 그들은

복음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의 고백 속에는 하나님과 복음을 위한 뜨거운 사랑과 헌신이 녹아 있었다. 처음에는 갱흥교회에서 그녀의 사역을 지원하지 않았다. 그러다 2018년에 처음으로 월 200만(약 7000원)을 지원했다. 그러다가 작년 2020년부터 월 1500만(약 5만 원)으로 올랐다. 일반적인 한국 선교사의 후원 내용과 전혀 다른 액수이다. 그렇지만 그녀의 선교사로서의 부르심과 헌신, 그리고 사역의 결실은 한국 선교사가 본 받아야 할 내용이다.

더 놀라운 이야기를 한다. “올해부터 후웨이교회에서 저를 위해 1000만을 사례비로 주기 시작했습니다.” 후웨이교회는 작년보다 헌금이 많아지기 시작했다고 한다. 이제 성인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다. 자립의 모습은 다른 곳에서도 찾아볼 수 있었다. “지금 교회건축을 계획하는데 약 100만 반(약 35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외부지원을 받지 않고 그들 스스로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안내하려고 합니다.” 놀랍게도 모교회인 갱흥교회의 자립 전통이 자연스럽게 몽족 교회에게 흘러가고 있었다. 갱흥교회의 교회당과 회의실 등의 건축을 진행하며 외부에 도움을 요청

하지 않았다. 요청할 곳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것은 교인들의 마땅한 책임임을 자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 성숙한 모습이 아직도 어린 몽족교회에 자연스럽게 이식되고 있었다.

연약한 그녀가 왜 이렇게 커 보일까? 어쩌면 그녀는 사도행전에 나타난 선교의 원형에 더 충실한 모습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한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선교 이야기 속에는 이름조차 나와 있지 않은 많은 무명의 선교사들이 있다. 세상에서의 인정은커녕 오히려 박해와 환란 중에도 복음을 전했다. 하나님이 부르신 선교사의 삶을 묵묵히 걸어갔던 분들이다. 그분들의 섬김이 있었기에 하나님 나라는 누룩처럼 번져 나갔다.

‘갱흥교회’와 ‘푸앙락’ 사역자는 가장 초라하고 처진 주변부의 연약한 존재들이다. 그러나 그들의 현장 이야기는 결코 초라하거나 연약하지 않다. 복음의 역동성이 드러나며, 스스로 헌신하고 드리는 성숙한 이야기가 조용하게 진행되고 있다. 무명 선교사의 놀라운 현장의 모습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세상 나라와 다름을 다시 실감한다. [GPNEWS]

오영철 선교사

구독신청 안내

구독부수는 최소 1명 이상에게 복음을 나누며 전하도록 2부, 20부, 100부 이상 신청받고 있습니다. 구독료는 받지 않습니다.

후원 안내 구독신청 안내

복음기도신문은 동역자들의 기도와 헌금으로 제작·배포되고 있습니다. 동역하실 분들은 아래 후원계좌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국민은행: 651001-01-343666
예금주: 복음과기도미디어

후원자 명단

2021. 4. 14 ~ 4. 28 (가나다 순)
개인
교회자 김경선 김기홍 김다경 김선희 김수미 김애심 김혜신 박숙자 박현숙 신현경 오성애 윤미자 이삼연 이성준 이주선 장근해 장미자 정금자 정은혜 조명숙 차상복 차익수 차인순 무명
교회 및 단체
김화제일교회 꿈꾸는교회 목자교회 새순교회 오보평강교회 처음사랑교회 시흥교회 안양그루터기교회 열매교회는혜신일교회 주소망교회 시은좌교회 참종양터교회

“동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기사 채보·구독·헌금·동역 문의는 아래 전화나 이메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 070-5014-0406-8
E-mail: gnpnews@gnmedia.org (31952) 충남 서산시 운산면 원평3길 8
페이스북 www.facebook.com/gospelprayernews

발행인 겸 편집인: 김강호, 인쇄인: 이병동(주아이피디). 2010년 12월 1일 등록번호 충남. 다01355.(격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